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26. 9.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기준시점	1
3. 조사기간	1
4. 조사대상	1
5. 조사방법	1
6. 조사항목	1
7. 집계방법	1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1
II.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2
1. 종합 경기전망	2
2. 응답업체 분포	3
3. 항목별 경기전망	4
4. 업종별 경기전망	4
5. 규모별 경기전망	5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5
7. 지역별 경기전망	5
8. 올해 실적(영업이익) 목표 달성 전망	6
9.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	8
10. 수입 의존도 현황	8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0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기준시점

- 2026년 3/4분기(7, 8, 9월) - 실적기간
- 2026년 4/4분기(10, 11, 12월) - 전망기간

3. 조사기간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9월 1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5개 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 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20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인 8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 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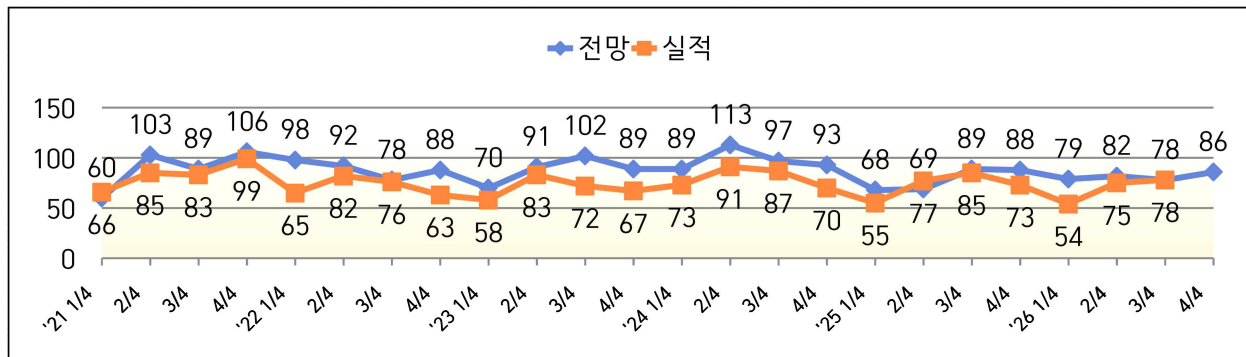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 0 \leq \text{BSI} \leq 200$$

1. 종합 경기전망

전북 제조업체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86’ ... 전망은 나아졌지만 실적 회복은 불투명

- 전북 제조업체의 4/4분기 경기전망은 전분기보다 나아졌지만, 내수 부진과 생산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1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86’으로 전분기 전망치(78)보다 상승함. 그러나 기준치(100)에는 10분기 연속 미치지 못했고, 경기 호전을 예상한 기업보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여전히 많았음.
- 기업들의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자금사정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매출액(92)·영업이익(87)·설비투자(97)·자금사정(73) 전망이 모두 기준치를 밑돈 가운데, 자금사정 지수가 가장 낮았음. 하반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자비용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부담은 올해 실적 전망으로 이어짐. 영업이익이 당초 계획한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54.2%에 달했음. 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과 판매·수주 여건 악화를 목표 달성의 주요 걸림돌로 꼽은 반면, 실적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판매·수주 여건의 회복을 선택함.
- 적정 원·달러 환율을 묻는 문항에서는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을 선택한 응답이 많았으나, 수입 원자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기업별로 차이를 보였음. 따라서 같은 환율 변동이라도 기업의 조달 구조에 따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 결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경영 부담을 덜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었음.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로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와 세제혜택 강화를 많이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음. 개선된 경기전망이 실제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판매·수주 확대와 함께 자금·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치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97	93	68	69	89	88	79	82	78	86
실적치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91	87	70	55	77	85	73	54	75	78	

2. 응답업체 분포

- 2026년 4/4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1.7%(26개사),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5%(51개사),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5.8%(43개사)로 나타남.
- 기업들은 4분기에도 현재와 비슷한 경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악화’ 응답이 ‘호전’ 응답을 상회해 전반적인 경기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임.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6년 3/4분기 전망	2026년 4/4분기 전망
호 전	17.7%(25개사)	21.7%(26개사)
비 슷	42.6%(60개사)	42.5%(51개사)
악 화	39.7%(56개사)	35.8%(43개사)
계	100.0%(141개사)	100.0%(120개사)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항목별 경기전망은 매출액(92), 영업이익(87), 설비투자(97), 자금사정(73)으로 모든 항목이 기준치(100)를 하회함.
- 특히 자금사정(73)은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4/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BSI	92 (83)	87 (70)	97 (98)	73 (61)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4. 업종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은 금속기계(96), 자동차부품(94), 바이오농식품(93), 전기전자(88), 섬유 의복(83), 비금속(80), 화학(65) 순으로 모든 업종이 기준치(100)를 밑돌았음. 일부 업종의 경기 전망이 개선됐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업종 전반의 경기 회복 기대는 여전히 제한적임.

【 2026년 4/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바이오농식품	섬유 의복	화학	비금속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 타
BSI	93 (90)	83 (67)	65 (75)	80 (80)	96 (68)	88 (100)	94 (81)	60 (40)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 금속기계(96)는 난방용품 제조업체의 계절적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으나,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해 업황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화학(65)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료가격·물류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함.

5. 규모별 경기전망

- ☐ 규모별 경기전망은 대·중견기업(100)이 기준치에 도달한 반면, 중소기업(82)은 기준치를 밑돌아 기업 규모에 따른 경기 전망의 차이가 나타남.
- ☐ 대·중견기업은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이 균형을 이뤘지만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과 원자재·인건비·금융비용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26년 4/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100 (96)	82 (73)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 수출기업(90)과 내수기업(85)의 4분기 경기전망은 모두 기준치(100)를 밑돌아 매출유형에 관계없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제한적임.
- ☐ 수출기업은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미국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환율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영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내수기업 역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4분기 경영여건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였음.

【 2026년 4/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90 (95)	85 (75)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 지역별 경기전망은 익산(105)이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상회했으며, 김제(100)는 기준치에 도달함. 반면 군산(92), 전주(85), 전북서남(55)은 기준치를 밑돌아 지역별 경기 전망이 엇갈림. 특히 전북서남(55)은 조사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됨.

【 2026년 4/4분기 지역별 B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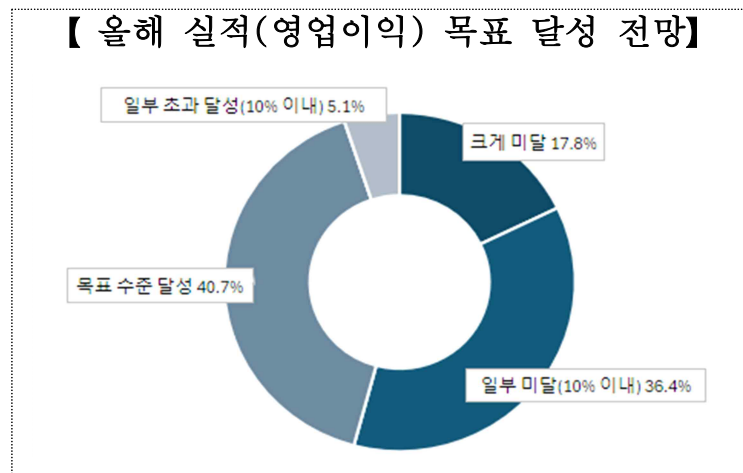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김제
BSI	85 (82)	105 (75)	92 (58)	55 (95)	100 (62)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8. 올해 실적(영업이익) 목표 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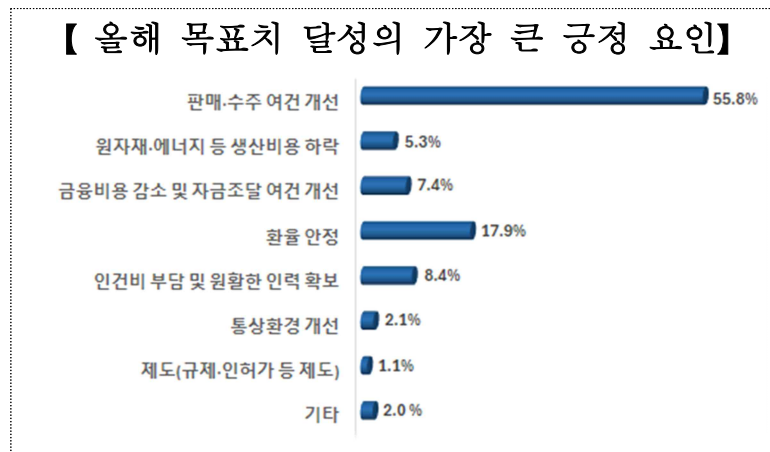
- 올해 영업이익이 당초 계획한 연간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0.7%로 나타남. 반면 ‘일부 미달(10% 이내)’ 36.4%, ‘크게 미달’ 17.8%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으며,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5.1%에 그침.
- 절반 이상의 기업이 연초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어렵게 전망하고 있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제한적임.



8-1. 올해 목표치 달성의 가장 큰 긍정 요인

-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긍정적 요인으로서는 ‘판매·수주 여건 개선’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율 안정’ 17.9%,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 8.4%, ‘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7.4%,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 5.3%가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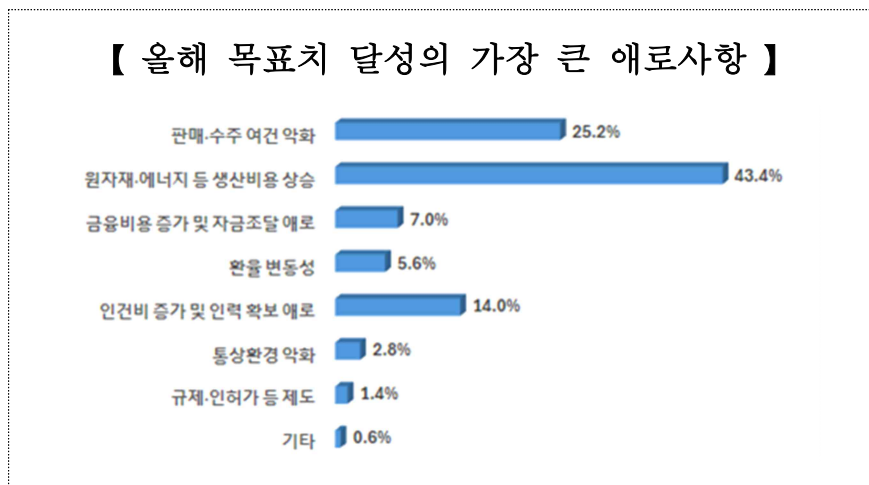
- 기업들은 ‘판매·수주 여건 개선’을 영업이익 목표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수요와 수주 여건의 회복 여부가 기업 실적 개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8-2. 올해 목표치 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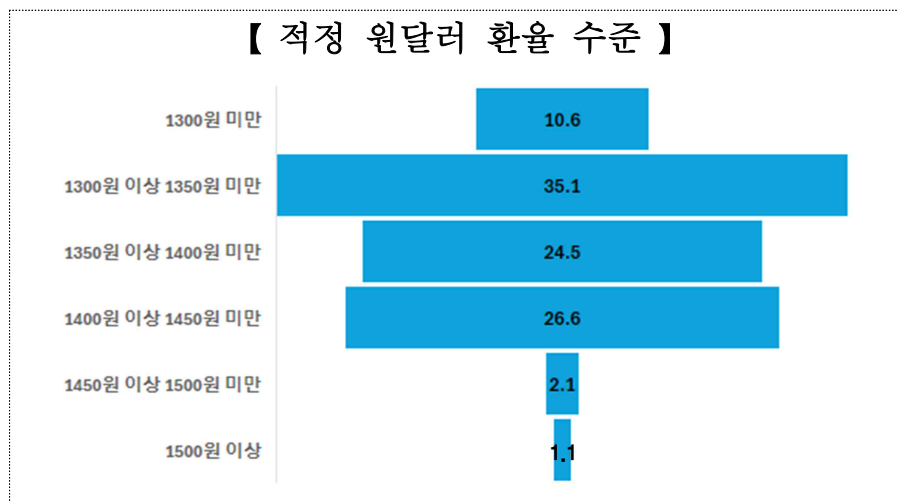
-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서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판매·수주 여건 악화’ 25.2%,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 14.0%, ‘금융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애로’ 7.0%, ‘환율 변동성’ 5.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기업들은 판매·수주 부진과 함께 원자재·에너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영업이익 목표 달성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원가 부담의 완화 여부가 수익성 개선 및 연간 실적 달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9.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

-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을 조사한 결과, ‘1,300원 이상~1,350원 미만’ 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400원 이상~1,450원 미만’ 26.6%, ‘1,350원 이상~1,400원 미만’ 24.5%, ‘1,300원 미만’ 10.6%, ‘1,450원 이상~1,500원 미만’ 2.1%, ‘1,500원 이상’ 1.1% 순으로 조사됨.
-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원화 환산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수입 원자재·부품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조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수출입 구조에 따라 적정 환율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응답의 86.2%가 1,300원 이상~1,450원 미만 구간에 집중된 반면, 1,450원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본 기업은 3.2%에 그침. 이는 기업들이 과도한 고환율보다는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일정 범위의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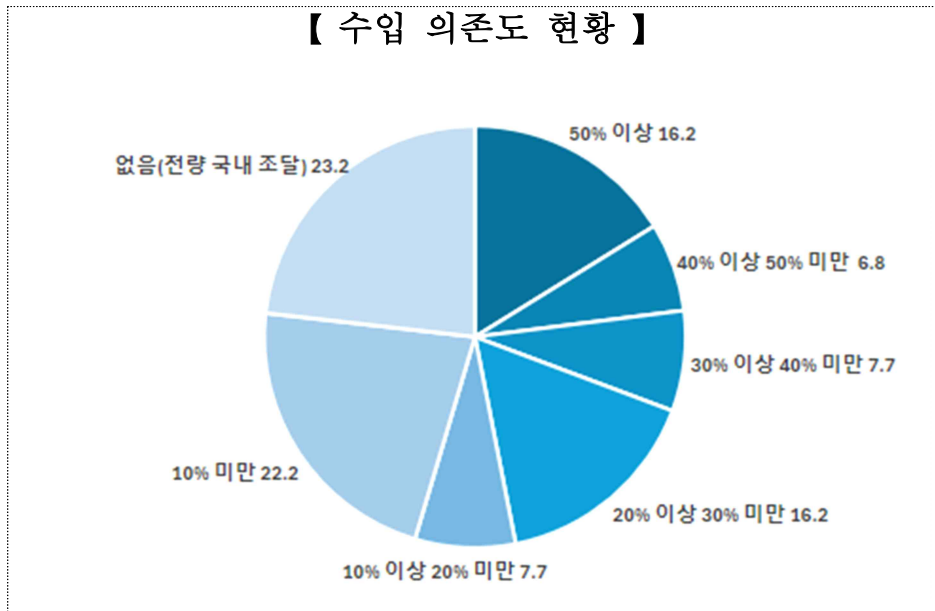
10. 수입 의존도 현황

- 수입 의존도(연간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부품 등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를 조사한 결과, ‘없음(전량 국내 조달)’ 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0% 미만’ 22.2%, ‘20% 이상~30% 미만’ 과 ‘50% 이상’ 이 각각 16.2%로 조사됨. 이 밖에 ‘10% 이상~20% 미만’ 과 ‘30% 이상~40% 미만’ 이 각각 7.7%, ‘40% 이상~50% 미만’ 은 6.8%를 차지하였음.

□ 전량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기업이 45.4%를 차지한 반면,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도 16.2%에 달해 기업별 해외 조달 의존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환율 상승이나 해외 원자재 가격 변동이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부담도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수입 의존도 현황 】



【 업종별 수입 의존도 현황 】

■ : 최다 응답 항목

구분	없음 (전량 국내 조달)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바이오농식품	17.2	24.1	3.4	24.1	6.9	3.4	20.7
섬유의복	16.7	16.7	16.7	33.2	-	-	16.7
화학	35.0	15.0	5.0	25.0	5.0	5.0	10.0
비금속	11.1	11.1	-	22.2	11.1	22.2	22.2
금속기계	20.8	33.4	12.6	8.3	8.3	8.3	8.3
전기전자	-	25.0	-	-	25.0	12.5	37.5
자동차부품	37.4	25.0	12.5	-	6.3	6.3	12.5
기타	40.0	-	20.0	20.0	-	-	20.0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 21.7%, ‘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 15.3%, ‘지역 인력난 해소’ 12.7%, ‘위기 산업·지역 지원 확대’ 8.3%,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7.0%, ‘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 1.9% 순으로 조사됨.

□ 특히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와 ‘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를 선택한 기업이 54.8%로 절반을 넘어, 지역기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여력을 확충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금·세제 지원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